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미 소비자 신뢰지수 5개월째 하락
- Bloomberg: 미 무역 적자 기록적...관세 전 수입 늘어

[미국 금융]

- WSJ: 트럼프 취임 100일 맞아 미 국채 금리 상승세

[물류]

- Bloomberg: LA항만 책임자, 화물 교역 어두운 전망 내놓아

[트럼프 관세 여파]

- WSJ: 트럼프, 자동차 관세로 인한 타격 완화 나서
- Bloomberg: 시진핑, "미국에 대항하자"
- Bloomberg: 일본, '트럼프 관세로 국가들의 중국 접근' 우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대형 소매업체들, 가격 억제...지속 불가능
- WSJ: 아마존, 위성 인터넷 강자가 되는 길 아직 멀어
- WSJ: UPS, 아마존 결별 후 2만 명 감원 계획
- WSJ: 스타벅스, "주문 처리 속도 개선 중"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YahooFinance: Consumer confidence plunges for fifth straight month as jobs, inflation fears rise on Trump trade policy

미 소비자 신뢰지수 5개월째 하락

- 4월 들어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 시장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4월에 86을 기록해, 3월 수정치인 92.9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 예상치는 88이었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Record US Goods-Trade Deficit Implies Weaker First-Quarter GDP

미 무역 적자 기록적...관세 전 수입 늘어

- 미국의 3월 상품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관세 시행 전에 기업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선입한 데 따른 것으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연방 상무부는 화요일(현지시간), 3월 상품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9.6% 증가한 1,6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 세부적으로는, 수입이 5% 증가해 3,427억 달러에 달했으며,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 및 자본재 수입도 증가했다. 수출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U.S. Treasury Yields Edge Up as Markets Assets Trump's 100 Days 트럼프 취임 100일 맞아 미 국채 금리 상승세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미국 국채의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는 연간 평균을 밟았으며, 4월 말 현재 주간 기준 흐름은 최근 5년 내 거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2년물 국채 금리는 3bp(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3.711%, 10년물은 2bp 오른 4.234%, 30년물은 1bp 상승한 4.704%를 기록하고 있다.

WSJ 기사

[물류]

Bloomberg: LA Port Chief Offers 'Bleak' Outlook for Cargo Slowdown LA항만 책임자, 화물 교역 어두운 전망 내놓아

-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태평양 항로를 통한 화물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
-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태평양 항로 운항 선박 수는 40척으로, 4월 초에 비해 약 40%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소매업체들이 필 요한 시점에 상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LA항만청 책임자 Gene Seroka는 “트럼프의 100일 관세 유예 기간은 수입업체들이 원활하게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그는 향후 2주 안에 LA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수가 3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 으며, 이는 수입업체들을 위한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또, 관세 여파로 동남아에서 출발하는 선박 운항도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 였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관세 여파]**WSJ: Trump to Soften Blow of Automotive Tariffs
트럼프, 자동차 관세로 인한 타격 완화 나서**

-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자동차 관세가 적용되는 업체들은 추가적인 관세,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 또한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Bloomberg: Xi Is Trying to Turn World Against US as Trump Cuts Trade Deals
시진핑, "미국에 대항하자"**

- 미국이 각국과 관세 관련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 외교관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가해 국가'로 규정하며 각국 정부에 미국에 맞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90일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외국 정부들이 대응에 나서도록 설득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 유예 조치는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중국은 자국이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이 중국과 함께 미국의 압박에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번 관세 전쟁에서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한편, 한국과 유럽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여전히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모색 중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Japan Worries Trump Tariffs Will Push Countries Toward China
일본, '트럼프 관세로 국가들의 중국 접근' 우려**

-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여러 국가들을 중국과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인사가 경고했다.
-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인 Itsunori Onodera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점점 더

- 중국과 밀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보다 긴밀한 군사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Retail Giants Manage to Keep a Lid on Prices but Warn It Can't Last 대형 소매업체들, 가격 억제...지속 불가능

- 미국 주요 소매업체인 월마트, 타겟, 아마존은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들은 공급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중국발 일부 선적을 중단하며, 이미 수입된 재고를 활용하고 있다.
- 월마트, 타겟, 홈디포의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일부 상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소매업체들은 광고 수익 확대와 사내 복리후생 축소 등 비용 절감 방안을 통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연시키고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4월 일부 품목에서 소폭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아직 큰 변동이 없다.

WSJ 기사

WSJ: Amazon Wants to Be a Satellite-Internet Powerhouse. It Has a Long Way to Go.

아마존, 위성 인터넷 강자가 되는 길 아직 멀어

- 아마존은 Project Kuiper를 통해 SpaceX의 Starlink와 경쟁하기 위해 27개의 위성을 발사하며 글로벌 위성 인터넷 제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 이 프로젝트는 3,200개의 위성으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 아마존은 FCC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2026년 7월까지 1,600개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치 가능한 위성 수가 줄어들 수 있다.
- 현재 시애틀 근교 공장에서 위성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최대 하루 5개 위성 생산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 그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아마존은 연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ULA, 아리안스페이스, 블루 오리진 등과 협력해 추가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

WSJ 기사

WSJ: UPS to Cut 20,000 Jobs After Amazon Breakup UPS, 아마존 결별 후 2만 명 감원 계획

- UPS는 최대 고객인 아마존과의 관계 종료 후 2025년에 2만 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73개의 건물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는 아마존이 자체 배송망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 아마존은 UPS 매출의 약 12%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UPS는 네트워크 재구성과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에는 이미 1만2000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11개 건물을 폐쇄했다.
- UPS는 올해 4억~6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간 전망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 2025년 1분기 UPS는 215억 달러 매출에 11억9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WSJ 기사

WSJ: Starbucks Says It's Making Progress on Quest to Fulfill Orders

Faster

스타벅스, "주문 처리 속도 개선 중"

- 스타벅스는 고객의 긴 대기 시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수십 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 새로운 주문 순서 알고리즘은 카페 내 음료 주문 평균 제조 시간을 2분 단축했으며, 가장 바쁜 시간대에 4분 이내 주문 완료율이 75%에 달한다.
- 스타벅스는 이 기술을 미국 내 1만 개 매장 중 수백 개로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 이 회사는 4분기 연속 동일 매장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며, 서비스 속도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매출 회복을 노리고 있다. 또한, 모바일 주문의 정확한 픽업 시간 예약과 수요 기반 직원 배치 등 다른 기술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트럼프 100일 경제 성적표...S&P500 7.8%↓·달러 가치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둔 가운데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미국 자산 시장에서의 '성적표'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속에 미국의 주가와 국채 가격, 달러 가치가 모두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최근 나타났고 미국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 **S&P 500, 이달 한때 취임 전 대비 16.9% 급락**
- ◇ **달러인덱스 9% 넘게 떨어져...미국채 금리도 '불안'**
- ◇ **취임 후 첫 GDP 성장을 주목..."3년만에 최저" 전망도**

◇ "투자자들, 미국이라는 브랜드 재평가 중"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